

오늘도 우리는 안녕합니다.

김현정

고요하다.

큰 소요 뒤의 짧은 고요는 그 선명한 대비 때문에 마치 귀가 사라진 것 같은 착각마저 일으킨다. 숨을 있는 힘껏 들이 쉬어 가늘고 길게 뱉는 내 숨소리가 들린다.

바야흐로 금요일이다. 아이들 셋이 모두 등교하는 날이다. 아침 아홉시, 아이들의 등교가 모두 마무리 된 시간, 마침내 고요는 찾아왔다. 열두시 십분, 막내 아이의 하교로 이 짧은 고요는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오의 신데렐라가 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단 세 시간이다. 이 세 시간이 소중한 음악조차 켜지 않고 커피를 내린다. 소리가 사라지면 시간조차 느려진다. 전기포트에서 컵으로 물을 따르는 소리가 조르르르륵 늘어진다. 빈 공간에 커피향이 퍼진다. 소리가 사라진 공간에 시간이 들어찬다.

커피컵을 손에 쥔 채 아이들이 서두르며 떠난 흔적을 본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바닥에 널부러져 있는 빨랫감들은 발로 툭툭 쳐서 한곳으로 모은다. 곳곳마다 아이들의 잔상이 음소거모드로 보인다. 여기 이 식탁에 앉아서 온라인 수업을 하던 애, 여기 앉아서 EBS 방송 수업하던 애, 줌으로 실시간 수업 한다고 윗도리만 갈아입고 잠옷 바지는 그대로 입은 채로 앉아 엄마도 동생도 얼씬하지 못하게 하던 큰 애. 2주전까지는 남편도 재택근무로 집에 있었지. 애들이 하나씩 다 차지하고 앉아 남는 공간이 없어서 여기 있는 이 생똥맞은 싸구려 책상을 급하게 구했더랬다.

2월에 시작되어 한 두 주 정도 개학을 연기하면 될 줄 낙관했던 코로

나19 사태는 1학기를 넘 어, 9월 피크를 넘겨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어차피 올해는 망했어. 그렇게 생각하며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 한 해를 통째로 모두 포기하고 나니, 가뭄에 콩 나듯 찾아오는 이 짧은 고요가 소중하다. 과장 조금 보태면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보물 같다. 누구든지 이 속으로 침범하면 욕을 내뱉게 될 것 같은 강박마져 느껴진다. 과감하게 핸드폰마져 꺼 버리고 혹시 아이들 하교시간을 잊을까 부엌 요리용 타이머로 알람을 맞췄다.

지난 9개월 동안 나는 24/7 풀타임 근로자였다. 그러니까 24시간, 주7일 연속근무자 말이다. 아이들이 번갈아 등교하던 기간에도 하루 24시간 내내 누군가는 꼭 내 옆에 있었다. 코로나19는 나에게 제정신을 지키려 이 악물고 세 번을 이미 버텨낸 신생아기를 다시 한 번 안겨줬다. 조금의 과장도 없이 글자 그대로 십 오 분마다 누군가 엄마~를 불렀다. 나중에는 십 오 분이 넘었는데도 엄마~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환청이 들릴 지경이 되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엄마~를 불러서 이렇게 말해다. 아이 두 명이 1분차로 엄마~를 불렀던 날이었다.

“니넨 엄마를 너무 많이 찾아. 니넨 셋이고 나는 하나야. 니들이 한번씩만 불러도 난 세 번을 들어야 하는거라고. 안되겠다. 오늘 하루는 엄마 안 찾는 날로 정해서 하루 종일 엄마를 적게 부른 사람에게 상을 줘야겠어.”

농담처럼 말했고 애들은 재미있다고 깔깔댔지만 절반은 진심이었다. 이런 나의 꼼수는 엄마는 불러야겠으나 지고 싶지는 않은 막내가 슬금 슬금 다가와 나를 손가락으로 꺾꺾 누르며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결국 끝이 났다.

엄마 좀 그만 부르라고! 순식간에 이성을 잃고 소리쳤던 어느 날, 어안이 병병해 입 벌린 채 눈만 꿈뻑꿈뻑하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

고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엄마 쉬는 시간을 선언하고 부부의 방에 틀어박혔다. 집에 불이 나거나 누군가 다치지 않는 한 절대로 엄마를 찾아서는 안 되는 두 시간을 만들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처음 며칠은 낮잠을 잤다. 이후에는 책을 읽거나 게임 삼매경에 빠지거나 미드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문을 노크하거나 나름 다급한 일을 만들어서 슬금슬금 엄마의 간을 보던 아이들은 몇 번의 불호령 뒤에 빠르게 이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집에 틀어박혀 있던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나는 편당 한 시간, 시즌당 열 두 편짜리 미드를 4시즌이나 탐닉했다. 무료함은 창의력의 원동력이라던가. 심심했던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프로젝트를 만들어 키네마스터로 짧은 영상을 만들거나 레고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같은 창의적인 일로 관심을 돌렸다.

동물을 마리당 생활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좁은 우리에 몰아넣으면 서로 싸우고 피바람을 낸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서도 혼자만의 시간과 장소는 필요하다는 말이 사회과학 헛소리가 아니라 뼈에 박히는 격언이 되어 다가왔다.

어느덧 열 두 시다. 막내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아이들이 돌아온다. 집 안에는 소음이 먼지처럼 쌓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고요 뒤에 찾아온 소음은 오히려 활기이다. 먼저 온 아이는 후에 들어오는 아이를 과하게 반긴다. 오랫동안 못 본 절친한 친구처럼 서로의 일과를 보고하고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느라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정리하면서도 말이 끊이지 않는다. 니네 겨우 반나절 떨어져 있었거든? 우습기도 하다. 학교에서 가져온 새로운 정보로 어떻게 놀 것인지 작당질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 오롯이 불편함과 괴로움 뿐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행동범위를 제한당하고 집안에 묶여 있는 시간 동안 아이들은 절친이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하던 부모님께서는 새로운 이슈가 보도될 때마다, 그러니까

매우 자주, 전화하게 되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하고 서로의 삶에 쫓겨 일 년에 한 번 연락 할까 말까 했던 친구들의 안녕을 궁금해 하고 망설이지 않고 온라인상이지만 안부를 묻게 되었다.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지만 정신적인 거리는 가까워진 기분이다.

당연시되던 야근과 추가근무가 사라져 죄책감 없이 칼퇴근한 남편,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저녁을 먹는다. 식구, 음식을 함께 먹는 입이라는 의미의 가족구성원을 지칭하는 말. 가족으로 묶여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식구가 아니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친해지려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여행을 가라는 흔한 말은 가족에게도 해당된다. 함께 모여 기쁘하거나 슬퍼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혹은 격렬하게 싸우고 제대로 화해 할 시간조차 없이 각자 바쁜 현대의 가족에게 어쩌면 코로나19는 강제로 붙어 있을 시간을 만들어 준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너무 앞서 나간것일까? 가족이 붙어 있는 시간, 다시는 강제당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쩌면 가족 모두가 자각하여 자발적으로 가져야 할 시간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 잊지 말자. 2020년을.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9개월을.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시간을. 혼자 있는 시간도, 함께 하는 시간도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안녕하다.